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담배와의 전쟁'과 ISD]

No. 846 | 2012. 2. 22.

강력한 담배 규제책, ISD에 막히나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임주영 법무법인 지평지성 호주변호사

호주 정부는 2006년부터 담배 규제 정책을 도입, 호주 내에서 유통되는 담뱃갑에 직설적인 경고 문구와 흡연의 폐해를 한눈에 보여 줄 수 있는 사진들을 총천연색으로 함께 삽입하도록 입법화했다. 또한 최근에는 '담배포장법(Tobacco Plain Packaging Act 2011)'을 통과시켜 2012년 12월부터 호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담배 제품의 담뱃갑을 무늬 없는 짙은 갈색 포장지에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통일하고 규격 서체로 담배 제조회사의 이름과 제품명만 표기하여 담배 제조회사의 로고와 그 어떤 광고 문구도 넣지 못하도록 담뱃갑 포장을 의무화했다.

담배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이러한 법이 도입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호주가 처음인데, 강력한 담배 규제책을 검토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많은 나라들이 호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막강한 자금력과 정치력을 가진 다국적 담배 회사들이 연이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중략)

- [한경 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